

## 나노기술 심포지엄 · 전시회 29-30일 개최

나노기술(NT) 분야의 세계적 석학과 첨단 나노제품이 한 자리에 모인다.

나노코리아 2007 조직위원회는 8월29-31일 경기도 고양시 KINTEX에서 국내 최대의 나노기술 행사인 제5회 국제 나노기술 심포지엄 및 전시회(NANO KOREA 2007)를 개최한다고 8월16일 발표했다.

행사는 <나노기술, 미래로의 초대(Nanotechnology, Invitation to the Future)>라는 주제로 국제 나노기술 심포지엄과 전시회가 함께 열려 나노기술을 통한 미래의 발전상을 제시할 계획이다.

행사에는 7개국에서 기업과 대학, 연구소, 정부기관 등 153개 기관이 241개 부스를 마련해 규모가 2006년보다 30% 커졌다.

LG전자와 삼성전자 등 IT·전자분야 대기업을 비롯해 잉크테크와 석경에이티 등 첨단나노소재기업, 지멘스(Siemens), NND, 엠아이텍, 큐딕스 등 나노공정 및 측정분석 분야 국내외 기업들이 참가한다.

행사에는 차세대 IT(반도체, 디스플레이기술) 및 적용·소자부품, 각종 나노사이즈 신·복합소재, 나노사이즈 물질분석 및 측정광학장비, 국가 나노기술 연구과제 및 인프라 등이 전시된다.

전시회 부대행사로 기술 산업화 및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R&D 기술거래 및 투자 설명회가 열려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등 52개 기관이 개발 기술 이전 등 기술 산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.

또 심포지엄에는 한국과 일본, 독일 등 5개국에서 42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해 나노전자, 나노소재, 나노공정기기, 나노분석, 나노화학, 나노물리, 등 7가지 주제로 나눠 강연이 진행된다.

기조강연자로 나서는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(KAIST) 총장은 <나노기술 경쟁력을 위한 선결과제>에 대해 강연하며 미국 벨연구소 김종훈 대표는 <경제성장, 혁신, 그리고 나노기술의 역할>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.

또 제4회 나노코리아 시상식이 열려 우수한 연구실적을 발표한 개인에게 나노연구혁신상(과학기술부장관상 등)이 수여되고 우수한 제품·기술을 개발한 기업 및 기관에는 나노산업기술상(국무총리상, 산업자원부장관상 등)이 수여된다.

<화학저널 2007/08/17>